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양계민** · 황순택***

초 록

본 연구는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응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스트레스 및 외상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줄 수 있는 지원체제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에 위하여 새터민 초등학교 24명과, 중고등학생 79명을 대상으로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 S형)와 청소년성격평가질문지(PAI-A: 단축형)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응 상태가 여러 측면에서 문제 있음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중고등학생 연령층 중 약 35%가 정서적 문제, 충동조절 문제, 타해 또는 자해 위험성, 또는 대인관계 부적응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서 문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사회지원체제 구축 및 실행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함을 드러내었다.

주제어: 새터민 청소년, 심리성격 특성, 심리적부적응

* 이 논문은 경기도교육청 지원 2006 교육정책연구 결과보고서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I. 서 론

2007년 3월 현재 남한거주 새터민의 수는 1만 3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20세 미만인 새터민 아동청소년의 수는 1,184명으로 조사되고 있다(통일부, 2007). 이는 전체 새터민의 11.5%에 해당하는 수치로,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큰 수치라고 볼 수 없으나 새터민 아동 청소년들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들은 향후 입국할 새로운 새터민 청소년들의 적응을 도와줄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통일한국 사회에서 남북간의 교량역할을 할 잠재적 인적 자원이기때문에 이들의 올바른 적응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새터민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여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을 나타낼 경우,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비합법적인 행동방식에 개입되어 새터민 청소년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새터민 청소년들의 올바른 적응 및 생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체제확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박미석, 정승원(1999)은 새터민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크게 정서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정서적 측면으로는 북한에서 형성되었던 사회적 관계망의 상실과 한국에서의 사회적 지지망이 아직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부터 오는 유대적 상실감(이우영, 1997; 전우택, 2000),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오혜정, 1995; 이소래, 1997; 이영애, 1996; 이우영, 1997; 전우택, 2000; 전우택, 민성길, 1996), 그리고 자아정체감 상실을 말한다. 이에 비해 경제적 측면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에 익숙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과 직장을 얻지 못해서 경험하는 불안감을 말하며, 사회적 측면은 한국인들의 새터민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이질감과 언어 이해의 어려움(전우택, 2000) 등을 들 수 있다.

새터민들이 탈북 및 입국 과정에서 경험하는 위와 같이 다양한 측면의 스트레스는 우울증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인영(2001)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 편입되기 이전에 새터민의 약 30%가 임상적 우울군에 해당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김미령

(2005)의 연구에서도 연구에서 조사된 새터민의 약 40%가 임상적 우울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기영·엄태완(2003)도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한사회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활스트레스 등이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새터민들의 심리적 건강의 문제는 청소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부모 없이 단독으로 탈북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더욱 큰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장창호(2001)의 연구에 따르면 새터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문제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외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이 또래집단이나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입국 초기에 특히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두 번째는 불안과 걱정으로, 갑작스런 환경변화와 사회적 조건, 구체화 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친구관계에 대한 불안, 진학 및 가정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주로 남한 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친구관계나 학습에 대한 자신감 상실 등이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소외감의 문제로 남한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언어적 차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의 차이, 농담에 끼일 수 없는 분위기, 놀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학교나 학원에 다녀도 강한 소속감을 느끼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작은 키, 학습능력 부족, 가족 간의 갈등, 북에 있는 가족, 남한 사람들의 냉대 등 많은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및 건강한 자아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새터민 청소년들이 입국 후의 경험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분도 많지만, 사실상 이들은 남한에 입국하기 이전의 북한에서 생활할 때부터 이미 육체적, 정신적, 정치적, 사상적 외상을 이미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도 발각이나 체포의 두려움, 육체적 외상, 가족과의 생이별, 믿고 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등 매우 다양한 외상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eon, Hong, Lee, Kim, Han, & Min, 2005). 새터민 청소년들의 외상을 조사한 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희우(2004)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연구에서 조사된 새터민 청소년 70명 중 79%가 북한 내에서도 탈북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외상적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체포에 대한 불안에 더불어 인신매매

의 불안까지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인진, 2000a; 이기영, 2002; 장창호, 2001; 전우택, 2000; 조한범, 이우영, 이금순, 전효관, 2003).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2007)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새터민 청소년의 외상경험 비율을 조사한 바 있는데, 조사 대상자 120명 중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식량부족이나 심한 추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8%였으며,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고문당하거나 공개 처형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3%나 되었다. 또한 ‘탈북 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 경비병에게 검열을 받아 몹시 긴장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9%, ‘탈북 준비나 과정 중에 발각될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5%로 나타나는 등 일반 청소년들로써는 경험하기 매우 어려운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북과정과 제3국에서의 체류경험은 어린 아동들로써는 견디기 어려운 심각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충격적 사건의 연속으로, 박순영(2000b)이 중국의 현지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길림성 연길시에서 만난 북한 어린이 55명 가운데, 아버지의 사망이나 실종을 경험한 아이가 18명, 어머니의 사망이나 실종을 경험한 경우가 20명이었고, 사단법인 좋은 벗들에서 1999년 작성한 국경지역 난민보고서에서도 조사된 탈북어린이의 86%가 부모가 사망했거나 병을 앓고 있어서 가족에게 의지하여 살 수 없는 아이들이며, 아이들끼리 있는 경우는 3-5위엔의 돈을 내고 비디오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돈이 없는 날은 역전과 병원, 아파트 계단, 시장매대 앞에서 잠을 자는 등 매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리저리 떠돌며 구걸을 하거나 굶주림, 학대, 인신매매, 성폭력, 심한 노동 등을 경험하거나 송환의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모란, 2002). 이렇듯 제3국에서의 경험은 폭력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에 직접 입국하는 청소년에 비해 정신 건강에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들이 경험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나타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전우택, 2005), 이로 인하여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적응교육에 불참하고, 술 등의 자극적인 물질을 요구하며, 북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표출하기도 하는 성인들의 경우(최명선, 최태산, 강지희, 2006)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부적응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전의 경험을 통해 겪었던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쉽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문제는(정향진, 2005; 최성숙, 2003) 이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국내 새터민 뿐 아니라 국외의 난민들의 경우도 다양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Bauer & Priebe, 1994; Beiser & Hyman, 1997; Williams, 1987), 초기 1-2년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기 쉽고 그 양상이 적응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되고 있다(Hur & Kim, 1995). Stober(1994)도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정신건강을 연구하였는데, 강박적인 행동(obsessive compulsive behavior), 대인적 민감성(interpersonal sensitivity), 편집증(paranoia), 적대감, 좌절감 등의 순위로 문제행동이 많이 표출되는 경향성이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난민들이 고국에서 경험한 무수한 상실의 결과로서 온 슬픔(grief)이 해결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이기영, 1999).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심리적 외상을 초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지 않은 채 방치했을 경우 새터민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새터민 청소년들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생활이나 직업교육, 주거지 등의 외적으로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외상을 다루어 줄 수 있는 지원체제 확립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새터민 청소년들의 상황을 보면 남한에 입국한 후 하나원에서 단기간의 적응교육을 받은 후 곧바로 남한사회로 투입되어 심리적 외상을 치유할 새도 없이 남한의 청소년들과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새터민 청소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원은 주로 교육 부분에만 맞추어져 있고, 이들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학교교육이 새터민 청소년들의 조속한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심리적 안정과 적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업 및 사회 규범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보다 다면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과 보다 나은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방 법

1.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은 현재 하나원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S초등학교와 H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총 103명의 학생들 이었다. S초등학교의 학생들은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총 24명으로, 남자가 10명, 여자가 14명이었다. H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14세부터 21세까지의 총 79명으로, 남자가 29명, 여자는 50명이었다.

2. 측정도구

정신건강 및 적응양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에 각기 다른 척도를 실시하였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 S형)를 사용하였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청소년성격평가질문지(PAI-A, 단축형)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들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각 연령대의 심리적용 상태를 가장 잘 측정해낼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기 위함하였고, 둘째, 남한학생들의 상태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아동청소년들 대상의 규준이 마련되어있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새터민 청소년들이 남한의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북한교사출신 새터민 두 명에게 척도문항을 제시하고 새터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일부 문항의 용어를 북한식으로 바꾸도록 하여 수정하였다.

1)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 S형)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는 조선미, 박혜연, 김지혜, 홍창희, 황순택(2006)이 표준화한 부모보고형 척도로, 임상장면에서 아동의 정신과적 문제를 선별, 진단하고 학교장면에서 심리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적, 치료적 개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검사는 원래 최근 6개월 동안 아동과 같이 생활한 보호자가 아동의 발달, 정서, 행동, 대인관계, 현실접촉 등을 평정하는 것으로 인지, 정서, 행동 특징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보고형척도(KPRC-S, 홍상황·황순택, 2004)는 아동이 자신에 대해 직접 평정할 수 있도록 KPRC의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만든 것이다.

KPRC의 사용대상 연령은 3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사용되었다. 척도의 구성은 타당도 척도 3개(일관성, F, I)와 자아탄력성 척도 1개, 그리고 10개의 임상척도로 구성되어있었는데, 임상척도의 하위 척도로는 언어발달, 운동발달,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과잉행동,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신증 등이 포함되었다. 총 문항의 수는 179문항이었다.

이 검사를 본 연구에서 선택한 이유는 아동의 정신병리나 적응 잠재력을 잘 나타내는 문항들을 아동평가와 관련 문헌에서 광범위하게 수집하였고, 최근 10년간의 국내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저자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개발된 검사보다 생태학적 타당성이 높으며, 실제 정신과적 임상 장면과 학교 장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홍상황·황순택, 2004), 남한의 아동들과의 비교도 용이하고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어서 보고자 하는 정신건강에 관한 다차원적 영역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2) 청소년성격평가질문지(PAI-A: 단축형)

청소년성격평가질문지(PAI-A: 단축형)는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이수정, 조은경, 홍상황(2006) 등이 자체개발하고 타당화한 검사로, 중고등학교 연령 청소년의 성격과 정신병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검사이다. 본 척도는 크게 타당도 척도, 임상 척도, 치료고려척도, 대인관계척도의 4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척도의 하위 척도를 보면, 타당도 척도에는 비일관성, 저빈도,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의 4가지 하위 척도가, 임상척도에는 신체적 호소, 불안, 불안장애, 우울, 조증, 망상, 정신분열병, 경계선 특징, 반사회특징, 알코올문제, 약물사용 등의 11개 하위척도가, 치료고려 척도에는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거부의 4가지 하위척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척도에는 지배성과 온정성 2개의 하위척도가 포함

되어 있었다. 본 척도의 총 문항은 168문항이었다. 본 척도 역시 남한학생들의 규준이 제시되기 때문에 비교가 용이하며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채택되었다.

3. 절차

S초등학교와 H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28일부터 2007년 2월 5일까지 총 7회에 걸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연구자들과 무지개청소년 센터의 연구원이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인 시간을 얻어서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척도에 사용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르는 단어를 검사자에게 물어보도록 하였고, 그에 대해 검사자가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다.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났는데, 첫째로, 본 연구에 참여한 새터민 학생들은 보기로 제시된 문항을 본 문항으로 인식하여 보기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반응은 제시된 설문지 응답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보이는 행동으로 생각되었다.

둘째로는, 문항내용이 부정형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였다. 예를 들면 ‘외롭다는 느낌은 거의 없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본인이 외롭다고 느끼는 경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 중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지 몰라 혼돈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로, 검사에 대한 태도도 남한 학생들과는 달랐는데,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였고, 중간에 하다말고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는 앉아있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설문 문항자체가 새터민 아동·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루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넷째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단어의 뜻을 물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검사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아무 이유 없이 슬퍼질 때가 있다’ 또는 ‘내 생활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나도 다른 사람만큼 운이 좋은 것 같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 ‘억제하기 힘든 충동이 있다’, ‘가끔씩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쓴다’, ‘대가만 올바르게 치러진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등의 문항에 대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로, 중고등학교 연령대의 학생 중에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설문을 작성하는 동안 특별히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작성을 하거나 작성을 하지 못하고 검사자의 눈치를 보는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옆에 가서 이유를 알아보니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경우 검사자가 글을 대신 읽어주고 그 뜻을 설명해준 경우도 있었고, 옆의 친구가 대신 설명을 해주기도 했는데, 설명을 하는 쪽이나 설명을 듣는 쪽이나 한국말보다 중국말을 더 잘 이해하여 중국말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 후 검사지에 응답하였다.

III. 결 과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별로 서로 다른 검사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집단과 중학교 집단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 및 제시하였고, 각 영역별 평균점수, 하위척도상의 특징, 적응곤란사례의 빈도, 성별차이, 개인특성변인과 하위척도들 간의 관계 등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1. 초등학교 집단

1) 영역별 평균 점수

초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S)의 점수를 척도별 전체 평균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S 초등학교의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영역별 평균점수

척 도 명		측 정 영 역	전체평균 (T점수)
타당도 척도	일관성	각 문항에 일관성 있게 반응한 정도를 측정	58
	L	아동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행동을 부정하고 아주 바람직한 아동으로 기술하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측정	50
	F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증상의 과장이나 무선 반응과 같은 일탈된 반응자세를 측정. 극단적인 상승이 아닌 경우 적응의 어려움을 반영함.	64
자아탄력성(ERS)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아동들의 대처능력이나 적응 잠재력을 측정	51
임상 척도	언어발달 (VDL)	언어 발달의 지체나 언어 기능의 손상을 측정	61
	운동발달 (PDL)	정신운동기능의 협응 정도 및 속도, 신체 발달, 운동 발달 정도를 측정	60
	불안 (ANX)	자연현상이나 대인관계 혹은 사회관계에서의 두려움이나 불안, 긴장 등을 측정	60
	우울 (DEP)	우울한 기분, 자신감 결여, 활동성 저하, 사회적 철수, 자살 사고 등 우울과 관련된 영역을 측정	55
	신체화 (SOM)	심리적인 문제를 신체증상으로 나타내는 신체화의 경향을 측정	55
	비행 (DLQ)	비행 성향을 측정	51
	과잉행동 (HPR)	과잉행동 및 충동성, 부주의한 측면 등을 측정	52
	가족관계 (FAM)	가족 내에서의 긴장감, 불화정도, 자녀와의 관계 등을 측정	54
	사회관계 (SOC)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측정	57
	정신증 (PSY)	상동적인 행동, 부적절하고 특이한 언행, 망상과 환각, 비현실감 등 언어, 사고, 행동에서의 특이함이나 현실접촉의 어려움 등 정신병적인 증상을 측정	57

일반적으로 임상장면에서 개인의 프로파일을 해석할 때는 T 점수 65 또는 70 이상 일 때 의미 있는 상승으로 분류하여 임상적 해석을 하지만 집단 특히 비임상 집단의 평균 프로파일의 경우는 규준집단의 평균점수인 T50으로부터 약간만 이탈되어도 의미

가 있는 것으로 주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검사에 대한 타당도를 나타내는 세 가지 검사결과를 보았을 때, 대체로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사절차에서 검사의 타당도를 우려할만한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새터민 청소년들이 비교적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사에 임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체 집단의 각 척도 평균 T 값으로 이루어지는 프로파일을 살펴볼 때 앞에 제시된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F 척도가 약간 상승해 있고, 임상척도들이 평균적으로 T50~60범위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많은 새터민 아동들이 현재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람으로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어서 검사에 임한 아동들이 자기통제와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해 나름대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각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각 하위척도상의 특징

(1) 언어발달 및 신체발달

임상척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언어발달(VDL) 척도점수와 운동발달(PDL) 척도점수가 각각 61점과 60점으로 가장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 척도는 언어 발달의 지체나 언어기능의 손상을 측정하는 척도이고, 운동발달은 정신운동기능의 협응 정도 및 속도, 신체 발달, 우동 발달 정도에 관한 측정이므로 이 두 척도에서 동일 연령대 남한 기준보다 점수가 높다는 것은 새터민 청소년들이 언어발달과 운동발달 측면에서 발달이 지체되었음을 의미한다.

(2) 불안

불안(ANX) 척도도 의미 있게 상승해 있었다. 이 결과는 이들이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긴장수준이 상승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현재 비교적 편안하고 철저히 보호받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척도상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이들이 입국하기 이전까지의 여러 가지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과 앞으로 남한사회에서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 등이 많음을 말해주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3) 사회관계와 정신증

사회관계(SOC) 척도와 정신증(PSY) 척도를 보면, 두 척도에서도 기준보다 약간 상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척도는 소외감, 수줍음, 기타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어려움과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기술부족, 사회적 철수나 고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이 두 척도에서의 점수가 기준보다 상승한 것은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립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특별히 위협감을 느낄 만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긴장되어 있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며,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비행 및 과잉행동

10개의 임상척도들 중 비행(DLQ) 척도와 과잉행동(HPR) 척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 현상은 아동들이 행동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아동들이 현재 상당히 주눅 들어 있고,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기 주장과 감정표현이 절제되거나 위축되어 있어서, 자기표현도 소극적이고 행동자체를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3) 적응곤란 사례의 빈도

각 척도에서 점수의 상승을 보이는 사례를 집계한 결과 모든 하위 척도에서 60점 이상인 청소년의 비율이 20% 이상이였다. 특히 언어발달과 불안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발달과 신체화, 사회관계, 정신증 등의 경우도 30% 이상 청소년들이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으며, 표에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임상척도 상에서 T점수로 70점(표준화집단의 상위 약 2 % 수준임)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총 24명 중 10명이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70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찰과 면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성별 차이

초등학생 연령 청소년들의 성별차이를 하위척도별로 분석해본 결과, 14개 척도 중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 척도는 L 척도와 불안 두 척도였다. 두 척도에 서 모두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 결과는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 해 자신의 어려움과 부적응을 부정하면서 심리적으로 보다 적응적이고 건강한 사람으 로 표현하고 있지만 남아들에 비해 불안과 긴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비록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했으나 자아탄력성, 운 동발달, 가족관계 척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척도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2> KPRC-S 성격검사의 하위척도별 성차

척 도 명		남자(N=10)	여자(N=14)	t
타당도 척도	일관성	51.40 (8.72)	49.57 (8.86)	n.s.
	L	53.80 (10.25)	61.79 (7.97)	2.13*
	F	61.00 (13.99)	65.64 (14.22)	n.s.
자아탄력성(ERS)		51.80 (8.50)	50.79 (10.40)	n.s.
임상 척도	언어발달(VDL)	59.60 (10.80)	61.86 (14.14)	n.s.
	운동발달(PDL)	60.80 (8.78)	60.07 (9.04)	n.s.
	불안(ANX)	53.60 (7.29)	63.71 (9.43)	2.83**
	우울(DEP)	51.00 (9.32)	57.86 (8.09)	n.s.
	신체화(SOM)	51.50 (9.32)	57.86 (7.26)	n.s.
	비행(DLQ)	51.30 (8.26)	57.86 (8.00)	n.s.
	과잉행동(HPR)	48.70 (7.97)	54.86 (12.56)	n.s.
	가족관계(FAM)	61.50 (12.32)	61.29 (10.47)	n.s.
	사회관계(SOC)	55.90 (7.20)	57.50 (10.14)	n.s.
	정신증(Psy)	56.20 (6.11)	58.29 (10.07)	n.s.

5) 초등학생의 개인 특성변인과 하위척도들 간 관계

연령, 북한학력, 학교를 다니지 않은 기간, 남한입국까지의 소요기간 등과 KPRC-S 하위 척도간의 상관을 산출한 결과 언어발달 척도와 정신증 척도의 경우 남한 입국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비행 척도의 경우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증상의 과장이나 무선반응과 같은 일탈된 반응 자세를 나타내는 F척도의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남한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에 대한 반응을 비일관적으로 한 비일관성 점수 역시 학교를 다니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KPRC-S 하위척도와 학교 다니지 않은 기간 및 남한입국까지 걸린 기간의 상관관계

하 위 척 도	학교 다니지 않은 기간	남한입국까지 걸린 기간
비일관성	.46	-
F	.36	.42
언어발달(VDL)	-	.58
비행(DLQ)	.48	-
정신증(Psy)	-	.44

2. 중고등학교 집단

1) 영역별 평균점수

남한의 중고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H중고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성격평가질문지(PAI-A)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H중고등학교의 한국 청소년성격평가질문지(PAI-A) 영역별 평균점수

척 도 명		설 명	전체평균 (T점수)
타 당 성 척 도	비일관성(ICN)	문항에 대한 반응과정에서 수검자의 일관성 있는 반응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	48
	저빈도(INF)	부주의하거나 무선적인 반응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신병적 측면에서 중립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문항들	59
	부정적 인상(NIM)	지나치게 나쁜 인상을 주거나 피병을 부리는 태도	49
	긍정적 인상(PIM)	자신을 지나치게 좋게 보이려 하며 사소한 결점도 부인하려는 태도	48
임 상 척 도	신체적 호소(SOM)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집착과 신체화 장애 및 전환 증상 등의 구체적인 신체적 불편감을 의미하는 문항들	56
	불안(ANX)	불안의 상이한 여러 특징을 평가하기 위해 불안현상과 객관적인 징후에 초점을 둔 문항들	54
	불안장애(ARD)	구체적인 불안과 관련이 있는 증상과 행동에 초점을 둔 문항들	55
	우울(DEP)	우울의 증상과 현상에 초점을 둔 문항들	53
	조증(MAN)	조증과 경조증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증상에 초점을 둔 문항들	55
	망상(PAR)	망상의 증상과 망상형 성격장애에 초점을 둔 문항들	51
	정신분열병(SCZ)	광범위한 정신분열병의 증상에 초점을 둔 문항들	52
	경계선특징(BOR)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대인관계, 충동성, 정서적 가변성과 불안정, 통제할 수 없는 분노 등을 시사하는 경계선적 성격장애의 특징에 관한 문항들	52
	반사회특징(ANT)	범죄행위,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 자기중심성, 공감과 성실성의 부족, 불안정, 자극추구 등에 초점을 둔 문항들	49
	알코올문제(ALC)	문제적 음주와 알코올 의존적 특징에 초점을 둔 문항들	48
	약물사용(DRG)	약물사용에 따른 문제와 약물 의존적 특징에 초점을 둔 문항들	53

척 도 명		설 명	전체평균 (T점수)
치 료 고 려 척 도	공격성(AGG)	언어적 및 신체적 공격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자극하려는 태도와 관련된 분노, 적대감 및 공격성과 관련된 특징과 태도에 관한 문항들	48
	자살관념(SUI)	무력감과 자살에 대한 일반적이고 모호한 생각에서부터 자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이르기까지 자살하려는 관념에 초점을 둔 문항들	49
	스트레스(STR)	가족, 건강, 직장, 경제 및 다른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현재 또는 최근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항들	53
	비지지 (NON)	접근가능한 지지의 수준과 질을 고려해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부족에 관한 내용	56
	치료거부(RXR)	심리적 및 정서적 측면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예언하기 위한 척도로 불편감과 불만감, 치료에 참여하려는 동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및 책임을 수용하려는 의지 등에 관한 문항들	47
대인 관계 척도	지배성(DOM)	대인관계에서 개인적 통제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 대인관계적 행동방식을 지배와 복종이라는 차원으로 보고 점수가 높으면 지배적이고 낮으면 복종적임	47
	온정성(WRM)	대인관계에서 지지적이고 공감적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 대인관계를 온정과 냉담의 차원으로 보고 점수가 높은 사람은 온정적, 외향적이지만 낮은 사람은 냉정하고 거절적임	44

타당도를 측정하는 네 가지 척도의 점수를 볼 때, H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도 S초등학교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솔직하고 진지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점수를 평균적으로 보면, 심각한 정도의 정서적 또는 행동적인 부적응 상태는 보이지 않았다. 각 영역별 점수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 각 하위척도상의 특징

(1) 불안 및 불안관련 장애, 신체화

불안 및 불안관련 장애, 신체화 문제, 우울, 초조 등의 정서적 불안정과 고통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평균 이상의 T점수를 얻고 있고, 그밖에 일상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가족, 직장, 경제 문제를 포함하는)가 높고 사회적 지지는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새터민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위험한 탈북과정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남한에서의 생활도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며, 자신을 지지해줄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적극성, 공격성, 충동성

적극성, 공격성, 충동성과 관련된 척도상의 점수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는 S초등학교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새터민 청소년들이 행동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으며, 매우 주눅 들어 있고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자기주장과 감정표현이 절제되거나 위축되어 있고, 자기표현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등의 행동적인 특징을 보일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3) 적응곤란 사례의 빈도

검사결과 특히 주목할만한 결과는, 검사를 실시한 H중고등학교 학생 74명 중 약 35%에 해당하는 26명이 정서적 문제, 충동조절 문제, 타해 또는 자해 위험성, 또는 대인관계 부적응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서 T 점수 70점 이상을 얻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자살척도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례도 3명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일회적 검사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향후 보다 세밀한 면담, 관찰 및 추후 평가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치료와 상담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4) 성별 차이

PAI-A 하위척도상에서 성별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의미 있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5) 중고등학생의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하위척도상의 점수차이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제 3국에서의 경험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 하에 H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외에 제 3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심리적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 이외에 제 3국을 거쳐서 입국한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으로 바로 왔거나 중국만을 거쳐서 입국한 경우에 비해 부정적 인상, 우울, 경계선특징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제3국 체류경험에 따른 하위척도상의 점수 차이

하 위 척 도	제3국 체류경험 있음 (N=30)	제3국 체류경험 없음 (N=40)	t
부정적 인상(NIM)	38.17(2.52)	36.80(2.04)	2.65**
우울(DEP)	42.10(1.16)	39.78(2.66)	3.03**
경계선특징(BOR)	36.20(4.05)	34.51(3.30)	2.02*

다음으로 중국에서 머물 때 중국학교나 교회 등의 단체 및 집단생활을 한 경우와 그냥 여기 저기 돌아다닌 경우의 심리상태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남한에 들어오기 전에 있던 나라에서 학교에 다니거나 숨어서 성경공부를 하며 지낸 청소년들이 그냥 돌아다닌 이동들에 비해 오히려 망상, 공격성, 자살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집단생활 경험에 따른 하위척도상의 점수 차이

하 위 척 도	집단생활 함 (N=23)	그냥 돌아다님 (N=35)	t
망상(PAR)	47.04(6.44)	43.77(4.34)	2.32*
공격성(AGG)	34.70(3.17)	33.20(1.89)	2.25*
자살관념(SUI)	43.57(4.26)	41.63(1.85)	2.38*

다음으로, 중고등학생의 탈북경험과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교에 다니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비일관성과 망상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한입국기간이 길수록 비일관성, 저빈도, 망상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학교를 다니지 못한 기간이 길수록, 탈북 후 남한 입국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검사에서의 반응일관성이 낮은 것은 솔직하지 못한 반응을 가능성 보다는 한글의 해독능력의 제한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둘째, 부주의하거나 무선적인 반응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척도로, 정신병적 측면에서 중립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인 저빈도(INF)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기간이 길었을수록, 탈북 후 남한 입국까지의 기간이 길었을수록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습의 공백기로 인하여 검사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망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의 학력이 낮을수록, 학교를 다니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남한 입국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주변에 대한 경계와 의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에 입국하기 전의 생활상태가 열악할 경우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새터민 청소년들의 제 3국 체제경험이 매우 불안정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물론 예외의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린 학생들이 연령이 높은 학생들보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표 7> 하위척도들과 새터민 청소년 특성변인과의 관계

하 위 척 도	연 령	북 한 학 력	학 교 에 다 니 지 않 은 기 간	남 한 입 국 까 지 걸 린 기 간
비일관성(ICN)	-	-.38**	.37*	.28*
저빈도(INF)	-	-	-	.37*
망상(PAR)	-	-.32**	.40*	.36*
스트레스(STR)	.23*	-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응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심리적 상태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새터민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은 예 측했던 바와 같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부적응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가벼이 여기고 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학교생들의 경우 언어발달(VDL) 점수와 운동발달(PDL) 점수가 남한의 동일 연령대의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점수가 높다는 것은 동일 연령대의 남한 학생들에 비하여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새터민 아동들의 신체적·신경학적 성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탈북과정에서 겪은 영양의 결핍, 교육의 공백 등 다양한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적·신체적 발달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북한과 남한의 언어체계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즉, 언어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자신의 말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의 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언어의 내용과 사용방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일이 새터민 아동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언어교육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S초등학교와 H중고등학교를 통틀어 전반적으로 볼 때 새터민 청소년들의 경우 불안, 긴장, 우울, 가족에 대한 염려 등이 학생들의 적응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현재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고통은 탈북과 그 이후 심한 긴장 속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심리적 상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심케 하는 이러한 정서적인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없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조기에 심리학적 또는 정신과적 개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적응에 필수적 요소일 것이다.

셋째, H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외에 제 3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

는지에 따라 심리적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해본 결과, 한국과 중국 이외에 제 3국을 거쳐서 입국한 경우가 한국으로 바로 왔거나 중국만을 거쳐서 입국한 아이들에 비해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우울 수준이 더 높았으며, 정서, 행동,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경계선적 특징이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들이 탈북을 한 후 제 3국에서 떠돌아다닌 경험이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터민 청소년들의 초기 입국시 심리검사와 함께 제 3국 체류경험 및 기간을 미리 조사하여 보다 심도 깊은 심리치료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넷째, 적응곤란 사례의 빈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총 24명 중 10명이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74명 중 35%에 해당하는 26명이 정서적 문제, 충동조절 문제, 타해 또는 자해 위험성, 또는 대인관계 부적응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자살척도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인 사례도 3명이 있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금명자 외, 2004; 윤인진, 2000a; 이기영, 2002; 장창호, 2001; 조한범 외, 2003; 전우택, 2000; 최명선 외, 2006; 백혜정 외, 2007 등)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났던 사실을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나타낸 결과로, 생각보다 높은 비율의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이 심각한 심리적 곤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적 심리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만일 이들에 대한 전문적 개입 없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새터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역량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사회적 낙오자 집단으로 전락하여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사회형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부적응 양상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겠다.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부적응 양상 및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개입함으로써 남한에 입국한 후부터 어떤 시점, 어떤 상황에서 취약성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터민 청소년 개개인의 심리적 취약점을 파악함으로써 심리상담을 위한 자

료로 활용하고, 검사와 상담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새터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심리측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담의 연계는 더욱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 측정과 상담 및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새터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심리 및 성격 검사를 실시하고, 일차적으로 부적응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보다 세밀한 관찰과 면담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심리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 심리상담가에게 곧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셋째, 새터민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교한 도구를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새터민 교사들에게 일차 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터민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해를 하지 못하여 검사의 타당도를 염려하게 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북한과 남한의 언어가 생각보다 매우 이질화되어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새터민학생 뿐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실시할 때에도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수준에서 수정할 문제가 아니라 비교문화적인 척도의 번역과 같은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자면, 언어 및 문화적 차이의 문제로 검사 자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검사 과정에서 언어이해능력이 떨어지고 오랜 기간 앉아있지 못하는 등 검사의 타당도를 의심하게 하는 여러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왔지만(최명선 외, 2006; 정향진, 2005; 장창호, 2001 등) 단편적인 특성들만 살펴보았을 뿐, 다차원적이며 남한학생의 기준과 비교할 수 있는 총체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검사가 아니더라도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건강상태를 탐색적으로라도 파악했다는 점과,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상태의 심각함을 시사했다는 점, 그리고 향후 새터민 청소년들을 대상의 검사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심리검사를 개발하여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 및 적응상태를 더욱 심도깊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희우(2004).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II.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미령(2005). 북한이탈 주민들이 인지한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자원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남성과 여성의 비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0권 제8호, pp. 95-124.
-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이수정, 조은경, 홍상황(2006). 청소년 성격평가 질문지. 학지사.
- 박모란(2002). 탈북아동의 남한사회 적응 연구. 서울여대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석, 정승원(1999). 탈북가족의 남한사회적응시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성곡논총 제30집, pp. 595-713.
- 박순영(2000b). 중국체류북한어린이의 성장발육상태연구. 비교문화연구, 제6권 제2호, pp. 199-219.
-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2007). 남한 내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준비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2호, pp. 183-211.
- (사)좋은 벗들(1999). 국경지역 난민보고서.
- 오혜정(1995).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인진(2000a).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3권 제2호, pp. 123-184.
- 이기영(1999).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8집, pp. 161-176.
- 이기영(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1호, pp. 175-224.
- 이기영, 엄태완(2003).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6권, pp. 5-28.
- 이소래(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애(1996). 북한이탈주민 대책마련은 통일과정의 시작이다. 자유공론, 제12권, pp. 106-117.

- 이우영(1997). Northern Defectors in South Korea, *신동아* 5월호.
- 장창호(2001).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 석사학위논문.
- 전우택(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엄*,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 전우택(2005). 통일연구에 있어 사회정신의학 영역. *통일연구*, 제9권 제2호, pp. 37-52.
- 전우택, 민성길(1996).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들의 삶-문제와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정향진(2005). 탈북청소년들의 감정선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제11권 제1호, pp. 81-111.
- 조선미, 박혜연, 김지혜, 홍창희, 황순택(2006).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5권 제3호, pp. 825-848 .
- 조한범, 이우영, 이금순, 전효관(2003). 북한이탈청소년 및 귀국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통일연구원.
- 최명선, 최태산, 강지희(2006). 탈북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놀이치료연구*, 제9권 제3호, pp. 23-34.
- 최성숙(2003). 탈북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인영(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1권 제6호, pp. 78-94.
- 홍상환, 황순택(2004). 한국 아동인성검사 개정판의 아동보고형(KPI-R-CRF)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3권 제2호, pp. 485-501.
- Bauer, M. & Priebe, S. (1994). Psychopathology and long-term adjustment after crisis in refugees from East German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Vol. 40, pp. 165-176.
- Beiser, M. & Hyman, I. (1997). Refugees' time perspective an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54, pp. 996-1002.
- Hur, W. M. & Kim, K. C. (1995). Adaptation Stages and Mental Health of Korean Male, [n.p.], Vol 26 No. 3, pp. 456-479.
- Jeon, W. T., Hong, C. H., Lee, C. H., Kim, D. K., Han, M. Y., & Min, S. K.

(2005). Correlation between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18, pp. 147-154.

Williams, C. I.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Vol 15, pp. 320-330.

ABSTRACT

An Initial Study into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the First Stages of Their Transition to Life in South Korea

Yang, Kye-Min* · Hwang, Sun-T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Firstly, it sought to examine the degree of psychologic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in South Korea. Secondly, it has attempted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support system which can help deal with their psychological and psychiatric trauma. For these purposes, 24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79 high school students from North Korea, made out KPRC-S type and PAI-A, each. Our results indicated that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suffered from several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 particular, 35% of the highschool aged adolescents had one or more problems among the following; affective problems, impulse control problems, self injury problems, and problems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indicates that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degree of adaptation of thes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has to be taken very seriously indeed and the construction and the application of appropriate remedies to their problems is an issue of some urgency.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psychological adaptation,
public support system

투고일 : 3월 16일, 심사일 : 5월 2일, 심사완료일 : 5월 20일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